

‘문학들’ 가을호 나왔다

범대순 교수 생애와 문학 조명



광주지역의 대표 문예지 ‘문학들’ 가을호(통권 37호)가 나왔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 5월 타계한 ‘무등산 시인’이자 영문학자인 범대순 교수의 생애와 문학을 다각도로 조명했다. 임동학 시인이 범 시인의 미발표 유고시 ‘다시 시인’ 외 11편을 토대로 그의 시에 내재된 미학과 사유를 폭넓게 분석했다.

특집으로 다룬 ‘대중 속의 인문학, 문학 속의 철학’에서는 최근 불고 있는 인문학 열풍을 어떻게 볼 것인지 문제 제기와 함께 대안을 모색했다. 박구용 전남대 철학과 교수가 ‘인문학에 대한 철학적 단상’을 주제로 철학의 대중화, 대중의 철학화 문제를 짚었고, 김대산 평론가는 ‘돌의 이미지, 소설의 철학’에서 돌을 매개로 한 창조적 의미를 고찰했다.

다른 특집 ‘문학사들’에서는 이동순 박사가 목포 출신 나주 사람 김진섭의 수필과 생애를 조명했으며, 이승철 시인은 ‘5월시’ 동인과 ‘젊은이들’ 문학 운동을 중심으로 광주의 문학정신과 뿌리를 진단한다.

사물 ‘들’에서는 채희윤(광주여대 교수) 작가가 ‘녹’을 주제로 다양한 의미를 유려한 문체로 풀어내며, 이야기 ‘들’에서는 최영훈 씨가 병역거부를 주제로 소수자들의 담론을 이야기한다.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3개의 시선

갤러리 D, 다음달 8일까지 개관 5주년 기념전



무라카미타카시 작 'Flower Ball'

갤러리 D는 개관 5주년을 맞아 다음달 8일까지 개관기념전 ‘나는 그들의 것이 아름답다’전을 개최한다.

이번 개관기념전에는 오병욱, 김덕용, 무라카미 타카시 등 3명의 작가가 소개된다.

흐릿한 수평선의 경계를 통해 공황적인 바다를 보여주는 오병욱 작가는 미술의 오랜 주제인 바다를 자신만의 세계로 표현한다. 시작과 끝을 구분하지 않고 무한함을 담고 있는 그의 바다는 누군가의 기억 속에 특정된 바다가 아닌 바다 그 자체의 순수성으로 관객에게 다가온다.

자연의 숨결이 살아 있는 나무판에 전통적인 미감을 담아온 김덕용 작가는 작품 속 그림인 인물과 고즈넉한 풍경을 통해 따스하고 정겨운 시선을 보여준다. 김 작가가 고운 색의 자개와 단청기법으로 그려낸 어머니와 소년, 담장 옆에 핀 들꽃과 쌓여있는 책들은 우리들이 간직하고 있는 기억 속 모습 그대로다.

화려한 색감과 애니메이션 같은 이미지로 인기높은 일본작가 무라카미 다카시의 판화작품도 함께 선보인다. 무라카미 다카시는 팝 아트와 애니메이션의 결합을 통해 고급미술과 저급미술간의 경계를 없애며 세계적인 인기를 얻은 현대 일본미술계의 대표 주자이다. 문의 062-222-8011. /김경민기자 kki@



광주 수완지구에 있는 북카페 ‘숨’과 ‘책만세 도서관’은 언제든 찾아가 책을 읽고 이웃들과 소통할 수 있는 진정한 복합문화공간이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나눔커피로 삭막한 도심에 공동체 ‘새 숨’

문화가 흐르는 공간

13 광주 수완지구 북카페 ‘숨’



동화속에서 본 듯한 하얀 건물이 인상적인 북카페 ‘숨’은 광주 수완지구의 복합문화공간이자 사랑방이다. 숨을 쉬다 갈 수 있는 카페와 도서관이 되고픈 마음에 지은 이름이다. 타지역에서 생활하다 3년전 광주로 온 안석·이진숙씨 부부는 수완지구를 삶의 터전으로 선택했다. ‘도심 속 마을’을 꾸미고 싶었다는 이들은 주민들과 어울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무엇일까 찾다가 도서관을 생각해 냈다.

동네 특성상 아파트 단지가 아닌 주상복합 지역이다보니 찾는 이들이 많지 않았다. 카페만으로는 이웃들과 소통할 수 없다고 여긴 이씨는 도서관을 열고 살롱(salon)처럼 하우스 콘서트를 열고 책읽는 낭송회를 하면서 주민들 스스로가 찾아오길 기다렸다. 함께 하고자 하는 이씨 부부의 노력 끝에 서서히 단골 주민이 생기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역 현안을 고민하고 있다.

“처음 광주에 정착하면서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것은 ‘지역에 필요한 게 무엇일까?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였습니다. 수익을 위한 카페를 오픈하긴 했지만 주민들과 함께하는 공동체적인 성격을 갖고 싶었어요. 세월이 흐르고 보니 이제 동네의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네요.”

커피와 책을 좋아하고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한다는 이진숙씨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와서 책을 읽어주는 엄마들이나, 하교후 친구들끼리 도서관을 찾아와 책을 읽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뿌듯하기만 하단다.

북카페 내부는 이국적이면서도 친근한 느낌이다. 팔각지붕 모양 아래 설치된 벽난로가 인상적이다. 불을 지피지 않았는데도 아늑한 느낌을 주 날씨가 쌀쌀해지면 더 어울릴 법하다.

북 카페 숨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서재에는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가득하다. 노트북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친절하게 마련돼 있고, 가운데 기다란 테이블에서는 종종 스튜디오

임이 이뤄지기도 한다. 바깥을 향해 창이 있는 곳 역시 테이블이 놓여있다. 곳곳이 독서를 하기에 안성맞춤이다.

카운터 왼편에 도서관으로 향하는 문이 열려있다. 작은 복도가 등장하고 역시나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의자가 놓여 있다. 친환경 목조건물로 만들어진 ‘책만세(책으로 만나는 세상) 도서관’. 꽤 넓은 규모다. 어린이책이 있는 곳은 카페트가 깔려 있고 넓은 홀에는 알

토론을 통해 인문교양을 높일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말로만 나눔과 이웃이 중요하다고만 할 게 아니라 실제로 실천하는 게 필요해요. 저희가 함께 하는 아프리카 신생아 모자 따주기 캠페인이나 생태화 그림으로 내집앞 마을 꾸기에 동참하는 것 또한 나눔의 일환이예요. 서로 힘을 합하니 시너지도 배가 되구요.” 이씨는 “삶의 가치를 실현해 시키는 게 무엇보다

안석·이진숙씨 부부 3년전 정착 ‘도심속 마을’ 꿈꿔 도서관 개방하고 책 낭송회 열어 주민들과 소통 손 뜨게 봉사·인권 교실 등 이웃 사랑 온정 ‘훈훈’

록달록 컬러풀한 타자들이 동그랗게 모여 있다. 책은 직접 구입하기도 하고 뜻있는 분들의 기증을 받기도 한다.

‘숨’을 주축으로 동아리 활동이 활발해진 것도 나눔의 일환이다. 손뜨개 모임인 ‘손수찌기’는 아프리카 신생아들의 모자 따주기 캠페인에 참여하자는 의미로 2011년 결성돼 올해까지 이어오고 있다. 첫 해에는 30여개의 모자를 만들어 기부했다. 지난해에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신생아 모자 외에 마을에 홀로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모자와 목도리를 만들어 80여분께 전달하기도 했다.

“바람하늘지기”는 세밀화동아리다. 이진숙씨를 포함해 15명 정도가 참여해 동네를 둘러보고 자연을 그린다. 숨쉬는 수완마을과 연계해 수완지구의 생태 세밀화를 이용한 마을지도를 만들어 동네 버스 정류장에 부착하는 성과도 올렸다.

지난 4월부터는 광주시가 추진하는 인문교양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동참하면서 다양한 인문교양 활동을 펼치고 있다. 매월 셋째주 금요일 오전 진행되는 영화제 ‘따숨동네극장’은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인권영화 상영 후

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입문 가까이에 놓인 메모지에 연락처를 남겨놓는 고객들에게는 ‘숨’에서 진행되는 행사나 특별한 날에 알리를 해주는 서비스도 있지 않는다. 오전 10시30분부터 밤 10시30분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매주 일요일은 문을 닫는다. 문의 070-4243-9420.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유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외관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너스
- 맞춤형 출장도시락

연회장 세미나 가족모임 상견례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게임동 홈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www.geumsoojang.com

특허방수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대한건축사협회 특허이슈머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단열복합시트

방수가 2~3년만 가면 된다고요? 20년은 가는데!!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결로·곰팡이 단열까지 한번에~! 아트패션시트® 곰팡이 결로 단열시스템

완벽한 3중 단열로 결로, 곰팡이 방지는 기본!
겨울에는 따뜻~ 여름에는 시원~ 탁월한 냉·난방비 절감효과 (20~30%)
새집증후군 예방효과, 명물디자인으로 바꿔주는 리모델링 효과까지!

이파엘지의 특허공법!!

시공과정: 1. 시공전 / 단열베이스카펫시공 2. 단열베이스카펫 / 트라이슈머시트시공 3. 트라이슈머 마감시공 4. 옥상시공후

배란다 시공후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친환경 Green환경을 추구합니다.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광주전남대리점 (062)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대리점 T.(061) 284-0485
여수대리점 T.(061) 683-0485
순천대리점 T.(061) 726-0482
광양대리점 T.(061) 795-0485

www.IPALG.co.kr 또는 이파엘지.kr